백년대계본부 재편 눈앞… '싱크탱크' 기대

단위사업 지양, 현실 가능한 종책 검토에 집중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7년 조계종 미래 전략기구로 출범한 백년대계본부가 2년 만에 전면 재편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존 위원회 구성에 큰 변화를 꾀하고, 운영방향을 단위사업이 아닌 현실 가능한 종책제안 등에 맞춰 본격적인 '싱크 탱크(Think Tank)'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오는 3월 말 출범을 목표로 재편 중인 백년대계본부는 기존의 대중공사추진위원회 · 종책개발위원회를 해산하고, 종령개정을 통해 신규위원회인 화합과혁신위원회, 문화창달위원회, 백만원력결집위원회를 추가했다. 지난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백년대계본부를 종단 혁신 원동력으로 강조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후속조치다.

이 중에서도 원행 스님이 총무원장 선거 당시부터 강조해온 것이 바로 화합과혁신위다. 지난해 종단 안팎에서 제기된 주요 소임자들의 스캔들로 1년여에 걸쳐 조계종이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종도 의견을 듣고, 종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조직이 화합과혁신위다.

화합과혁신위는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공식적인 위원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교구본사주지를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중진 비구니스님 등을 중심으로 섭외를 준비 중이다. 특히 소통에 방점을 둔 위원회인 만큼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15인 이내의 기획위원회, 30인 이내 인원이 모여 집중 논의를 하는 작은 대중공사 등을 추진한다.

위원회 활동은 온 · 오프라인의 투 트랙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 오프라인은 특정 사안에 대해 일명 '끝장토론'을 벌이는 작은 대중공사가 중심이며, 온라인은 실명제 게시판을 통한 정책제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화창달위는 그간 불교계서 이룬 문화 계승과 보전 등 성과에 힘입어 대중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집중한다. 단순히 불교관련 전시나 출판이 아닌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에 맞춰 불교가 녹아들 수 있는 매개를 찾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백년대계본부는 다양한 문화분야에서 저명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을 섭외할 계획이다.

백만원력결집위는 대중보살의 원력을 모아 불사를 원만 성취하기 위해 신설된다. 대대적인 모연캠페인을 주축으로 전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아름다운동행, 승려복지회 등 기존 모연단체들과의 중복성을 없애고자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기존 종단불사인 위례신도시 · 세종시 사업 등이 아닌 대중을 하나로 결집할 화두를 정해 모연에 나설 방침이어서 백만원력위가 어떤 불교적 가치를 공표할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위원회인 미래세대위원회는 1기의 회향과 2기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1기가 대학생 ·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도시락 등의 먹거리 지원사업을 펼친 데 이어 2기는 단위사업 대신 청년층의 고민을 정서적으로 돕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더불어 위원들 대다수를 청년층으로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결혼이나 주택문제 등 종교계가 해결할 수 없는 거대담론에 대한 논의는 지양하면서 휴식과 재충전, 문화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모색할 방침이다.

백년대계본부 관계자는 "한 차례 안팎 갈등으로 홍역을 치른 종단이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백년대계본부가 제대로 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본다"며 "이번 본부 개편은 현 집행부가 종단 혁신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앞으로 불교발전과 대사회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발전적인 논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산하위원회

화합혁신위원회
- 종단 풀뿌리 의견 취합
- 소통 중심 종책 검토

문화창달위원회
- 대중 위한 콘텐츠 개발
- 분야별 전문가 섭외 중

백만원력위원회
- 대대적 모연캠페인 전개
- 원력 결집할 화두 모색

'혁신위' 등 3개 위원회 신설
종도 제안 · 의견 청취에 방점
오는 3월 출범 목표 추진 중
"불교 가치 사회에 적극 전파"

조계종 연수교육 올해도 '다채'

승가결사체 확대 · 시대 맞는 강좌들 신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스님들의 전법교화 역량 강화를 위한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또한 연수 교육에 시대에 맞는 강좌들을 신설 · 운영한다.

조계종 교육원은 2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연수 교육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 교육원이 진행하는 연수 교육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지난해 새로 도입된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의 확대다. 승가결사체는 지난해 19개 단체에서 올해는 24개 단체로 확대 · 선정했으며, 지원금도 지난해 8000만원에서 올해는 1억4000만원까지 예산을 늘렸다.

봉사활동을 통한 스님들의 자비 나눔의 실천을 연수교육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 148개 기관, 교구본사 법인 산하시설 39개 기관, 종단 산하 및 기타 시설 4개 기관으로 총 191개 기관에서 시행한다.

또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위해 마련된 '인증교육 연수'는 53개 기관에서 총 57개 과정이 진행된다.

'강좌형 · 순례형 연수'는 스님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법계과정' 11개 △'사찰경영과정' 4개 △'선교율과정' 5개 강좌 △'인문사회문화과정' 16개 강좌 △'순례형' 국내 4곳 · 해외 6곳 등 46개 강좌를 개설했다.

특히 인문사회문화과정 강좌에는 사회적 약자, 공동체 문제, 기후변화 및 생태문제, 4차 산업혁명 등 사회트렌드와 시대 흐름에 맞춘 강좌들이 대거 신설됐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올해부터 '법계과정' 중 견덕 · 계덕 스님 대상인 '종단리더십실무과정'의 교육비를 전면 무료로 시행한다. 또한 특별과정으로 종사 · 명덕(승납 30년 이상) 법계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지도자최고위특별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설한다.

조계종 교육원은 "스님들의 연수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원에서는 2013년부터 강좌형 연수 교육비 20만원 중 '승납 10년 미만 스님'의 교육비 50%(10만원)를, 일반 스님들은 25%(5만원)를 종단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종단 스님들의 교육비 부담 감소를 위한 방안을 종단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바랑 메고 바람 따라 겨우내 석 달 동안거가 끝났다. 좌복 위에 화두를 풀어놓고 심검(尋劍)의 칼날로 번뇌를 잘라낸 스님들은 다시 바랑을 멨다. 바람이 이끄는 대로 만행에 나선다. 사진은 2월 19일 영천 은해사 산내암자인 백흥암에서 안거를 마친 비구니스님들이 도감 소현 스님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백흥암=윤호섭 기자

"수륙재 문화재 등재 공로 감사"

원명 스님 등 7명, 종정 · 총무원장 표창 받아

삼화사와 진관사 국행수륙재가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등재되는 데 힘쓴 공로자들에 대한 조계종 종정 · 총무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前삼화사 주지),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임돈희 동국대 석좌교수에게 종정 표창을, 진관사 총무 법해 스님, 삼화사 김영흠 · 김명남 불자에게 총무원장 표창을 전달했다.

표창을 받은 공로자들은 각각 삼화사와 진관사 국행수륙재의 전승을 통해 무형문화재로 승격시킨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한 종정예경실 도민 스님은 세계간화선무차대회의 성공적 봉행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종정 표창을 받았다.

이 자리서 원행 스님은 "매일 이런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를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불교문화예술 계통의 무형문화재 개발에 종단도 힘을 보태고,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을 잘 격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이외에도 어산어장을 보좌하며 염불원 활성화와 어산 보존 및 전승에 힘쓸 어산종장에 법안 · 정오 · 동희 스님을 지정, 증서를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대종사 원적

2월 18일 주석처서
22일 영결 · 다비식 봉행



송광사의 목우가풍을 이끌며 종단 계율 정립과 발전에 노력을 기울였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대종사 〈사진〉가 2월 18일 오후 12시 27분 송광사 삼일암에서 원적에 들었다. 승납 75년, 세납 92세.

1928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보성 대종사는 1945년 청암사 수도암 정각 토굴에서 정진하던 구산 스님을 의지해 출가했으며, 그 해 10월 15일 해인사에서 청섭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950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상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끊임없이 선리를 참구했던 보성 대종사는 이판과 사판을 모두 겸수한 수행자였다. 1950년 범어사 수선안거 이후 해인사, 송광사, 파계사 등 제방 선원에서 30안거를 성만했다. 특히 은사인 구산 스님과 가야산 중봉 법왕대에서 정진했고, 한국전쟁 직후 범어사 선원에서 동산 스님을 모시고 수행했다. 1962년 통합종단 발족 이후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의 소임을 맡았으며, 1969년 구산 스님을 방장으로 조계총림 설립 후에는 율주 소임을 맡았다.

1973년부터 3번에 걸쳐 송광사 주지 소임을 맡았고, 4차례에 걸쳐 중앙종회의원으로도 활동했다. 1980년 10.27 법난 이후 종단 비상 대책위원으로 참여해 단일계단 설립을 주도한 것은 대종사의 주요한 업적 중 하나다.

보성 대종사는 조계종 초대 법계위원장으로 종단 법계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조계종 단일계단 단주(전계대화상)에 추대됐다.

1997년과 2007년 조계총림 방장으로 추대되며 송광사 대중을 이끌었다. 평소 솔선수범해 도량 청소와 잡초 제거뿐만 아니라 채소를 심고 가꾸는 일에도 앞장 섰던 보성 대종사는 대중에게 "정진하고 또 정진하라. 오직 이것 뿐이다"라는 유훈을 남기고 원적에 들었다.

빈소는 송광사 정혜사 큰방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은 2월 22일 오전 10시 송광사 승보전 앞마당에서, 다비식은 경내 다비장에서 봉행됐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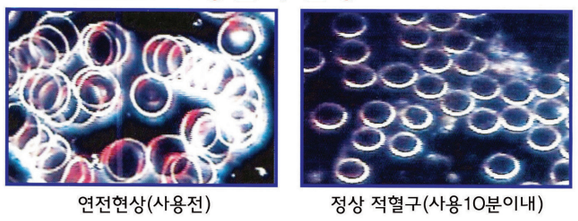
〈영결 · 다비식 차주 상보〉

"비누로 손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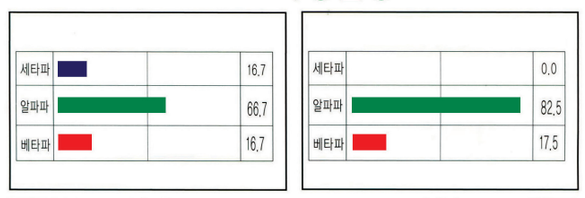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
어깨, 허리통증, 방사능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놔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